

| 기획논문 |

지배계급에 의해 배제된 인간, 아Q: 루쉰(魯迅)의 「아Q정전(阿Q正傳)」 다시 읽기

Ah Q, A Person Excluded by the Ruling Class
- Rereading Luxun's *The Real Story of Ah Q*

김명희

Kim, Myoung-Hee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 목차 |

1. 루쉰은 왜 「아Q정전」을 창작했을까?
2. 중첩된 두 개의 정치체제와 문화
3. 비폭력적 배제의 양상
4. 폭력적 배제의 양상
5. 나오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 국문 초록 |

루쉰은 「아Q정전」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키워드를 고민했다. 하나는 ‘현대 중국인의 영혼’, 즉 국민성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등급사회’이다. 루쉰은 「아Q정전」을 쓰게 된 연유라는 글에서, “나는 해야 할 말도 없고 써야 할 글도 없다. 그러나 내겐 스스로를 학대하는 성격이 있는지라 때때로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고함이라도 질러서 사람들에게 시끌벅적한 구경거리를 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다. 「아Q정전」은 루쉰의 첫 번째 소설집인 『외침』에 수록되어 있는데, 루쉰은 「아Q정전」을 창작하여, 전통 등급제도 사회에서 침묵 속에 마비된 삶을 살고 있는 현대 중국인의 영혼을 일깨우고자 했다.

아Q의 운명은 중국 전통사회의 지배계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Q정전」 속의 아Q의 모든 불행은 중국 사회 지배계급에 의한 배제로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주권권력인 지배계급에 의해 아Q는 어떻게 배제되었는가에 관해 탐색해 보았다. 기존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웨이좡(未莊) 마을의 지배계급은 폭력적 배제의 방식과 비폭력적 배제의 방식으로 아Q를 배제하고, 총살시킨다. 이 글에서는 주권권

력인 지배계급이 아Q를 배제하는 방식, 즉 ‘비폭력적 배제의 방식’과 ‘폭력적 배제의 방식’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서, 「아Q정전」 다시 읽기를 시도하였다.

주제어

루쉰, 아Q정전, 지배계급, 배제, 아Q

1. 루쉰은 왜 「아Q정전」을 창작했을까?

중국 베이징(北京)의 인민문학출판사(人民文學出版社)에서 2005년 11월에 간행된 『루쉰전집(魯迅全集)』은 총18권인데, 한국의 서울 그린비 출판사에서 2018년 5월 완역한 『루쉰전집』은 총 20권이다. 이 『루쉰전집』에는 루쉰(魯迅:1881~1936)이 창작한 순수문학작품만이 아니라 일기, 편지, 사회평론(雜文) 등 루쉰이 쓴 글이 모두 실려 있다. 루쉰의 순수문학 창작집에는 단편소설집인 『외침(吶喊)』과 『방황(彷徨)』, 산문시(散文詩)인 『들풀(野草)』, 유년의 회상록인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朝花夕拾)』, 그리고 옛이야기를 새로 엮어 쓴 역사소설에 해당하는 『새로 쓴 옛날이야기(故事新編)』가 있다.

이들 작품 중에서 루쉰이 쓴 소설은 총 33편이다. 『외침』에 14편, 『방황』에 11편, 『새로 쓴 옛날이야기』에 8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Q정전(阿Q正傳)」만이 유일한 중편이며, 「아Q정전」은 첫 번째 소설집인 『외침』에 수록되어 있다.

루쉰의 「아Q정전」은 1921년 12월 4일부터 베이징(北京)의 신문인 「천바오(晨報)」 부간(副刊)의 ‘우스갯소리(開心話)’ 코너에 발표되기 시작했다. 매주 혹은 격주로 한 차례씩 게재되면서 마치 통속소설 연재 분위기를 훔쳐 낸 듯하다. 그러나 그는 제1장을 쓰고 나서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고, 쑨푸위안(孫伏園)도 ‘우스갯소리’로 느껴지지 않아서 제2장부터는 ‘신문예’ 코너로 연재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 1922년 2월 12일 연재를 완료했다.¹

1 汪暉 저, 김영문 옮김, 『아Q생명의 여섯 순간』, 너머박스, 2015, 27~28쪽.

「아Q정전」은 5·4 신문화운동의 퇴조기인 1921년 12월 4일부터 1922년 2월 12일까지,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베이징의 신문에 연재된 소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이 연재된 기간 동안의 고충에 대해서 루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1장을 게재한 후, 바로 ‘괴로움’이 밀려왔다. 매번 7일 만에 반드시 글을 한 편 써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시 별로 바쁘지는 않았지만 마치 유민처럼 생활하고 있어서 밤이 되면 통로로 쓰는 방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이 방은 뒤쪽에 창문이 하나 있었고, 글을 제대로 쓸만한 공간도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겠는가? 쉰푸위안은 몸이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웃음을 실실 흘리며 원고 독촉을 잘 했다.²

루쉰은 샤오싱사범학교(紹興師範學校) 교장을 역임하던 시절에 자신의 학생이었으며, 나중에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을 졸업하고, 베이징의 신문 「천바오(晨報)」의 편집인이 된 쉰푸위안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문의 ‘우스갯소리(開心話)’ 코너에 글을 신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연재소설을 쓰기로 한 까닭에 제1장을 게재한 후부터 바로 ‘괴로움’이 몰려왔다고 고백하고 있다. 연재 당시의 필명은 루쉰이 아니라 ‘바런(巴人)’을 사용했다. ‘바런’은 ‘하리파인(下里巴人)’³에서 뜻을 취했으며 고상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했다. 쉰푸위안이 원고를 청탁할 때, 루쉰은 “아Q의

2 魯迅, 「「阿Q正傳」의成因」, 『魯迅全集』第3卷, 人民文學出版社, 397쪽.

3 ‘하리파인(下里巴人)’은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민간 가곡이다. 하리(下里)는 시골, 파인(巴人)은 촌놈을 가리킨다.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 지 이미 몇 년이 되었다”⁴고 했다.

루쉰은 「아Q정전」이 러시아어 번역본으로 나온다는 글에 서문을 써 주면서 중국 사회의 등급질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쓰기는 써 보았지만, 내가 현대 우리나라 사람의 영혼을 써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끝내 나로서는 자신이 없다. 남이야 어떤지 알 수 없지만, 나 자신은 늘 우리 사람들 사이에 높다란 담이 놓여 있어서, 각각을 떼어 놓아 모두의 마음이 통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 고대의 똑똑하신 분들, 즉 이른바 성현께서 사람들을 열 등급으로 나누고서 높낮이가 각기 다르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다. 그 명목은 이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명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계다가 더욱 심해져 사람의 몸조차도 차등이 생겨나 손이 받을 하등의 이류(異類)로 간주하기도 한다. 조물주는 사람이 남의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대단히 교묘하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성인과 성인의 제자들은 조물주의 결함을 보완하여 사람이 남의 정신적 고통 또한 느끼지 못하도록 해 주었다.⁵

위의 글을 보면 「아Q정전」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루쉰은 두 개의 키워드를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현대 중국인의 영혼’이며, 다른 하나는 ‘등급사회’이다. 루쉰은 「아Q정전」을 쓰게 된 연유라는 글에서, 나는 해야 할 말도 없고 써야 할 글도 없다. 그러나 내겐 스스로를 학대하는 성격이 있는지라 때때로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고함이라도 질러서 사람들에게 약간의 구경거리를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⁶

4 루쉰, 「『아Q정전』의成因」, 『魯迅全集』第3卷, 人民文學出版社, 396쪽.

5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러시아 역본 「아Q정전」 서언 및 저자의 자술 약전」(『俄文譯本『阿Q正傳』序及著者自敘傳略』), 『루쉰전집』9권, 그린비출판사, 127~128쪽.

「아Q정전」은 루쉰의 첫 번째 소설집인 『외침』에 수록되어 있는데, 루쉰은 「아Q정전」을 창작하여, 전통 등급제도 사회에서 침묵 속에 마비된 삶을 살고 있는 현대 중국인의 영혼을 일깨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Q의 운명은 중국 사회의 전통 등급제도, 그리고 지배계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Q정전」 속 아Q의 모든 불행은 웨이쑹(未莊) 마을 지배계급의 배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아Q는 중국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해 어떻게 배제되었는가에 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웨이쑹 마을의 지배계급은 폭력적 배제의 방식과 비폭력적 배제의 방식으로 아Q를 배제하고 총살시킨다. 여기서는 중국 사회 지배계급이 아Q를 배제하는 방식, 즉 비폭력적 배제의 방식과 폭력적 배제의 방식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해보면서, 「아Q정전」 다시 읽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2. 중첩된 두 개의 정치체제와 문화

아편전쟁(1840~1842)을 계기로 중국은 서구 세계를 향해 문호를 열게 되었다. 아편전쟁에서 서구의 작은 섬나라 영국에게 패배한 중국은 “세계의 중심(中華思想)”이라고 자부했던 중국의 사대부들에게 엄중한 생존의 위기의식을 느꼈다. 1881년에 태어나 1936년까지 55세로 삶을 마친 루쉰은 두 개의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는 청(淸)나라 말기의 광서제(光緒帝: 재위 기간 1874~1908)와 전통

6 루쉰, 「「阿Q正傳」의成因」, 『魯迅全集』第3卷, 人民文學出版社, 394쪽.

제(宣統帝: 재위 기간 1908~1911)가 통치하던, 즉 봉건 유교(儒敎)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신해혁명(辛亥革命)을 계기로 무너진 청나라 왕조의 뒤를 이은 중화민국(中華民國: 1912)이라는 입헌공화국(立憲共和國)이었다.

청나라는 유교사회 이데올로기로 유지되는 국가였다. 유교사회의 기본은 예교(禮敎)였으며, 예교의 도덕 내용은 첫 번째는 공동체적 윤리 규범이다. 중국 민간사회에는 예부터 생명력을 이어 온 전통적 행동 패턴이 작동하고 있고, 그것은 주로 상하로 작동하지만 또한 때로 수평으로 작동하는 때도 있다. 두 번째는 사회윤리규범이다. 세 번째는 조직 윤리이다.⁷

루쉰은 유년 시절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배우는 삼미서당(三昧書屋)을 다니며 중국 전통문화와 예교를 익혀 회계(會稽)의 현시(縣試)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나, 과거(科擧)시험을 보고 벼슬길로 나아가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했다. 남은 길은 신식 학당에 들어가는 길뿐이었다. 1898년 17세에 난징(南京)에 있는 강남수사학당(江南水師學堂)에 입학하였으나 학당의 분위기에 불만을 느끼고 자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1899년 다시 난징의 광로(礦路)학당에서 신학문을 공부하였는데, 학당의 간행물실에서 옌푸(嚴復)가 번역한 토마스 헉슬리의 『자연진화론(天演論)』과 『시무보(時務報)』에 실린 신사상을 선전하는 신문을 읽으며,⁸ 다윈의 적자생존과 사회가 필연적으로 진화한다는 사회진화론 사상을 수용하게 된다.

7 미조구치 유조 외 지음, 조영렬 옮김, 『중국 제국을 움직인 네 가지 힘』, 글항아리, 342~343쪽.

8 왕샤오밍 지음, 이윤희 옮김, 『인간 루쉰』, 동과서, 373쪽.

1902년 21세의 나이에 루쉰은 청(淸)나라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일본 유학을 떠난다. 처음에는 서양 의학을 배워 의사가 되고자 했으며,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마음이 충만하였다. 그러나 일본 센다이(仙臺)의 의학전문학교에서 미생물 수업시간이 끝난 후에 잠시 보게 된 러일(俄日)전쟁 시기의 시사(時事) 영상은 루쉰의 운명을 의학을 버리고 문학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 시사 영상은 바로 환등기(幻燈機) 사건이라고 하는데, 슬라이드 속에서 보이는 장면은 러시아 사람의 스파이 노릇을 한 중국인을 일본인이 참수(斬首)하는 장면이었고, 그 죽임을 당하는 중국인을 빙 둘러서서 구경하는 수많은 중국인의 모습에서 루쉰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정신이 마비된 중국인의 모습은 의사가 되겠다던 루쉰을 사람의 정신을 일깨우는 문학의 길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다.

그 후에는 의학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무릇 어리석고 약한 국민은 체격이 제아무리 건장하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하잘것없는 조리돌림의 재료나 구경꾼밖에는 될 수 없었다. 어느 정도의 사람이 병으로 죽더라도 반드시 불행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정신을 바꾸는 것이었다. 정신을 바꾸는 데 가장 좋은 것은 당시에는 당연히 문예(文藝)를 들어야만 했고, 그래서 문예운동을 제창하게 되었다.⁹

루쉰의 친구인 쉬서우상(許壽裳)은 『떠난 친구 루쉰 인상기(亡友魯迅)』

9 루쉰, 「自序」(『吶喊』), 『魯迅全集』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439쪽.

印象記』에서 루쉰이 일본에서 유학할 때 중국 국민성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음을 회상했다. 첫째,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성인가?” 둘째, “중국 국민성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셋째, “그 병폐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쉬서우상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가 루쉰이 평생 열심히 집중한 주제라고 생각했다.¹⁰ 루쉰이 의학을 포기하고 문학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바로 중국의 국민성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였다.

일본에서 문예운동을 제창하기 위해 루쉰은 몇 명의 동지들과 ‘새로운 생명’이라는 뜻이 담긴 『신생(新生)』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기로 하였으나, 나중에는 원고를 담당한 사람도 자본을 댈 사람도 도망가 버려서, 이 일은 무산되었다. 루쉰은 『신생』 잡지가 무산되면서 난생처음으로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다¹¹고 한다.

1909년 8월, 28세의 루쉰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 7년 반 동안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항저우(杭州)에 있는 저장양급사범학교(浙江兩級師範學堂)에서 생물과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그 후 1912년 2월, 교육부 총장이었던 차이위안페이(蔡元培)의 요청을 받아들여 난징에 있는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교육부에 취직한다. 그해 5월, 교육부가 베이징으로 옮겨 감에 따라 루쉰의 베이징 사오싱회관(紹興會館)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베이징에서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루쉰은 낮에는 교육부 관료로서 생활하고, 저녁에는 고서(古書)와 탁본(拓本)을 베끼면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인 치엔쉬안통(錢玄同)이 그에게 글쓰기를 권유하였고, 친구와 식로 된

10 許壽裳, 『亡友魯迅印象記』, 當代世界出版社, 25쪽.

11 魯迅, 「自序」(『吶喊』), 『魯迅全集』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439쪽.

방(鐵屋子)에 관한 토론을 한 후, “왜냐하면 희망이란 것은 미래를 향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없다고 하는 내 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¹²에 루쉰은 “글을 쓰겠다”고 응답을 했고, 처녀작인 「광인일기(狂人日記)」를 루쉰이라는 필명¹³으로 발표하였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인해 청 말의 사대부들인 궁쯔전(龔自珍)·웨이위안(魏源) 등은 서구의 장점을 배워 과학을 통한 군사훈련 양성 방법과 군주입헌의 정치제도를 배우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진리이다. 국수(國粹)건 아니건 그것이 우리를 보존할 힘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된다.¹⁴

현재 수많은 사람은 크게 두려워한다. 나도 크게 두렵다.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인’이라는 이름이 사라질까 하는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인이 ‘세계인’으로부터 밀려나는 것이다.¹⁵

루쉰을 비롯한 중국 근대의 지식인들은 아편전쟁 패배 이후, 중국의 존망(存亡)이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리고 중국인과 민족의 위기상태라는 ‘결과’에서 전통문화의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현실적 생존을 전통문화와 연관 짓고 생존의 위기를 가지고 전통문화를 부정하였다. 그 결과 사유 방식의 측면에서 ‘전통’은 생존을 가로막는 전체적 구

12 上同, 441쪽.

13 루쉰의 본명은 주수인(周樹人)이다. 「광인일기(狂人日記)」는 1918년 5월 『신청년(新青年)』 제4권 제5호에 발표되었다.

14 魯迅, 「隨感錄三十五」(『熱風』), 『魯迅全集』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322쪽.

15 魯迅, 「隨感錄三十六」(『熱風』), 『魯迅全集』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323쪽.

조로 간주하고 부정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몰라도 내 경우는 옛날 책을 많이 읽었던 것은 확실하고 가르치기 위해 지금도 보고 있다. 따라서 눈과 귀에 백화를 쓰는 데도 영향을 주고 늘 그런 자구와 격식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이런 오래된 혼을 짊어지고 벗어날 수 없어서 괴롭고 늘 숨 막힐 듯한 중량감을 느낀다. 사상적으로도 장주(莊周)나 한비(韓非)에게 중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 어떤 때는 제 맘대로 하고 어떤 때는 성급하고 모질게 군다.¹⁶

나 자신은 늘 내 영혼 안에 독기와 귀신의 기운이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그것을 몹시 싫어하고 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군요.¹⁷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루쉰은 자신에게 체화된 전통 예교문화와 의식이 자신을 칭칭 감싸고 있어서 벗어 던져 버리고 싶으나 쉽게 쫓아 버릴 수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왕후이(汪暉)는 루쉰의 정신에는 두 가지 역설적인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것은 전통에 대한 ‘비판’과 ‘자기인식’이라는 주제라고 하였다. 즉 새롭고 현재적인 눈으로 전통문화와 현실의 질서를 관찰하면서도 자신을 전통문화와 현실 질서의 범주에 두고 분석한다¹⁸는 것이다. 루쉰은 자신을 부정적 대상에 넣고 부정함으로써 ‘반전통(反傳統)’사

16 魯迅, 「寫在『墳』後面」, 『墳』, 『魯迅全集』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301쪽.

17 魯迅, 「致李秉中」(1924.9.24), 『魯迅全集』第1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274쪽.

18 汪暉 著, 송인재 역, 『절망에 반항하라』, 글항아리, 2014, 142쪽.

상을 가장 철저하게 시행한다. 루쉰의 자기성찰에서 나온 중국의 역사적 전통은 ‘식인(食人)’이다. 중국의 문명은 인육을 먹는 자의 주방이다. “중국은 언제나 식인잔치를 벌여 왔다. 먹는 사람과 먹히는 사람이 있다. 먹히는 사람도 사람을 먹은 적이 있고 먹고 있는 사람도 먹힐 수 있다.”¹⁹ 그의 소설 「광인일기」에서 주인공 광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다가 자신도 죽은 누이동생을 부지불식간에 먹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는 중국 지식인들에게 서구와 다른 중국 사회의 현실적 낙후의 원인을 고찰하게 했는데, 이 유교 전통문화가 현실 사회에서 유지되면서, 현실 속 인간의 실제 심리상태에 끼친 영향까지 고찰하게 했다. ‘전통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 유학에 대한 부정으로 드러났다. “유학(儒學)은 체계적인 사회윤리학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의무를 강조했고 국가와 가정의 예법을 강조했다. 그리고 전통의례와 습속에 대한 관찰에 주목했다. 따라서 그것은 틀림없이 황제 치하 신민들에게 도가(道家)보다 더 적합한 사유 틀이었다. 기나긴 세월 속에서 유학은 실제로 보편적으로 권위 있는 힘이 되었다.” 유가의 저작은 사람들-특히 공명(功名)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필독 경전으로 제도화되었다. 달리 말하면, “유학은 중국 전통사회의 보호우산일 뿐더러 제왕의 통치에 비교적 만족스러운 도덕적 세계관을 제공했다.”²⁰

이처럼 루쉰은 청나라 말기, 전통 유가 이데올로기 속에서 교육받고

19 魯迅, 「燈下漫筆」, 『墳』, 『魯迅全集』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228쪽.

20 (英)F.C. 科普勒斯東, 「漫議儒·釋·道—中國哲學的特點」, 李小兵 譯, 『國外社會科學』, 1987 第7期, 58쪽. 여기서는 汪暉 저, 송인재 역, 『절망에 반항하라』, 글항아리, 2014, 137쪽에서 재인용.

성장했으며, 신해혁명을 거친 입헌공화국인 중화민국이라는 두 개의 정치체제 사회를 경험하였다. 유가 이데올로기가 지배한 예치와 전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신해혁명을 겪으면서 5·4신문화(新文化)운동은 민주(民主)와 과학(科學)을 제창하며 반전통(反傳統)의 가치를 들었다.

3. 비폭력적 배제의 양상

「아Q정전」은 100년 전에 창작되어서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상이한 해석과 관점이 드러났는데, 논쟁의 초점은 다음 세 가지 문제로 집중되었다. 첫째, 작품의 서술방식에 단절이 있는가? 둘째, 아Q와 정신 승리법은 국민성의 대표인가 아니면 농민계급의 사상 특징인가? 셋째, , 아Q는 진정으로 혁명을 할 수 있었을까?²¹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시도하였다.

「아Q정전」을 한 단락 한 단락 계속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번에는 자기 머리에 욕이 떨어질까 봐 겁에 질려 벌벌 떨던 일이 기억난다. 한 친구는 내 앞에서 어쨌자 「아Q정전」의 한 단락이 자기를 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아Q정전」이 모모가 쓴 것이 아닌지 의심했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모모만이 이 사적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 이 후에 의심이 더 깊어져서 「아Q정전」에서 욕하는 모든 것은 그의 사생활이라고 생각됐고 「아Q정전」을 싣는 신문과 관련된 필자는 모두 「아Q정전」의 작

21 汪暉 저, 김영문 옮김, 『아Q생명의 여섯 순간』, 너머북스, 2015, 20쪽.

가라는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이「아Q정전」의 작가 이름을 수소문한 후에야 작가와 모르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제야 그는 문득 깨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욕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²²

위의 글은 현대평론과의 구성원이었던 가오이한(高一涵)이 「한담(閑話)」이라는 제목으로 『현대평론(現代評論)』(1926년 제4권 제89기)에 게재한 글인데, 루쉰이 「아Q정전」을 쓰게 된 연유라는 글에서 그의 글을 발췌하여 쓰고 있는 부분이다. 루쉰은 “이 ‘모모’ 선생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글은 「아Q정전」이 발표되던 시기에 많은 독자들이 아Q의 형상을 보면서 작가가 자기 주변 인물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한다.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오늘날에도 독자들은 때때로 자신이 아Q처럼 정신승리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치부를 합리화시키며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루쉰은 「아Q정전」을 쓰게 된 경위를 언급하면서 두 개의 키워드를 언급하였다. 하나는 ‘현대 중국인의 영혼’, 즉 국민성 문제였으며, 다른 하나는 ‘등급사회’였다.²³ 중국 사회가 사람을 열 개의 등급으로 나눈 등급질서에 따라 작동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등급질서로 인해 인간 사이에 단절과 격막의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총명한 사람들’과 ‘성인과 성인 무리’가 만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등급질서의 결과로 사람들은 이제 단절되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22 魯迅, 「『阿Q正傳』의成因」, 『魯迅全集』第3卷, 人民文學出版社, 396쪽.

23 魯迅,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러시아 역본 「아Q정전」 서언 및 저자의 자술 약전」(『俄文譯本『阿Q正傳』序及著者自敘傳略』), 『루쉰전집』9권, 그린비출판사, 127쪽.

도 무감각해졌다고 본다. 『아Q정전』은 이런 등급사회 원리가 작동하는 세계를 사는 중국인의 영혼에 관해 썼다는 것을 루쉰 스스로가 암시하고 있다.²⁴

또한 루쉰은 그러한 등급질서가 고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름만 바뀌었을 뿐 루쉰이 살던 당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고 생각하였다.

전쟁이 늘 있고 홍수와 가뭄이 늘 있어도 그 누가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싸우는 놈은 싸우고 죽이는 놈은 죽이지만 덕 있는 선비라도 나서서 시비를 따지는 것을 보았는가? 국민에 대해서는 그토록 전횡을 일삼고 외국사람에 대해서는 그토록 비위를 맞추니, 차등(差等)의 유풀 때문이 아니겠는가? 중국의 고유한 정신문명은 기실 공화(共和)라는 두 글자에 의해 전혀 매몰되지 않았다. 다만 만주인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만이 이전과 조금 다를 뿐이다.²⁵

루쉰은 「등불 아래에서 쓰다(燈下漫筆)」에서 신해혁명 이후, 만주족(滿洲族)인 청나라가 막을 내리고, 공화국(共和國)인 중화민국이 설립되었어도 중국인의 고유한 정신문명이자 국민성은 변화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루쉰은 등급질서의 원리를 통해 전통시대와 근대를 동시에 투시하면서, 등급질서 원리라는 차원에서 전통과 근대를 비판한 것

24 이옥연, 『『아Q정전』 속 등급질서와 아Q의 혁명-왕후이의 『아Q정전』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중국현대문학』 제86호, 2018, 59~60쪽.

25鲁迅,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등하만필(燈下漫筆)」, 『무덤』, 『루쉰전집』 1권, 그린비출판사, 321~322쪽.

이다.²⁶

루쉰은 중국 사회의 등급질서는 열 등급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소설 『아Q정전』 속에 나타나는 웨이쑹 마을의 등급질서의 층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웨이쑹 마을의 가장 상층부에는 자오나리(趙太爺)와 그의 아들 수재(秀才) 선생,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또한 자오나리와 일가인 자오바이옌(趙白眼)과 자오쓰첸(趙司晨)이 있다. 또 한 부류는 첸나리(錢太爺)와 동양의 섬나라인 일본을 다녀온 첸나리의 큰아들인 가짜양놈(假洋鬼子)이 있다. 그 중간에는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보(地保)와 쯔우치택(鄒七嫂) 등 동네 사람들이 있고, 하층부에는 아Q와 건달(閑人), 샤오디(小Don), 왕틸보(王胡), 우 어멈(吳媽), 정수암의 비구니 등이 있다. 물론 자오나리보다 더 상층에 있는 사람은 웨이쑹 마을이 아닌, 성안(城里)에 살고 있는 거인나리(舉人老爺)인데, 그는 성씨가 바이(白)씨였다.

등급질서에 따르면 웨이쑹 마을에도 지배계급이 존재하는데, 상층부의 자오나리와 첸나리, 그리고 중간층의 지보를 들 수 있다. 『아Q정전』에 나타나는 아Q의 불행은 모두 지배계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웨이쑹 마을의 권력층에 해당하는 지배계급에 의해 아Q는 다양한 방식으로 배제되고, 결국 웨이쑹 마을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그 배제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Q정전』에서 지배계급이 아Q를 배제하는 양상을 ‘비폭력적 배제’와 ‘폭력적 배제’의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폭력적 배제의 양상인데, 마을의 지배계급이 아Q를 배제하

26 魯迅,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러시아 역본 『아Q정전』 서언 및 저자의 자술 약전』 (『俄文譯本『阿Q正傳』序及著者自敘傳略』), 『루쉰전집』 9권, 그린비출판사, 60쪽.

는 방식은 첫째가 아Q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혁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 아Q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것’을 배제의 방식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웨이창의 등급질서에서 아Q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무슨 일을 하며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Q는 웨이장 마을의 낄팜팔이꾼이다. 오늘 날로 말하면 사회의 최하층인 ‘일용직 일꾼’인 셈이다. 그를 고용한 사람이 “보리를 베려면 보리를 베고, 방아를 찧으려면 방아를 찧고, 배를 저어라 하면 배를 저었다. 일이 길어지면 주인집에서 임시로 묵을 때도 있었지만, 일이 끝나면 이내 돌아갔다.”²⁷

아Q는 집이 없어 웨이장 마을의 사당에서 살았다. 비록 집도 없고, 마을이 낄팜팔이 일꾼이긴 하지만, 아Q에게는 정신승리법이 있다. 아Q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에게 얻어맞거나 놀림을 당하고도, “아들놈한테 얻어맞은 걸로 치지 뭐. 요즘 세상은 돼먹지가 않았어 …”라며 흡족해하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나 아Q는 자신보다 힘이 약한 마을 비구니의 머리통을 쓰다듬거나 그녀의 볼을 꼬집으며 놀려먹는다. 비열한 행동을 하고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아Q는 자신보다 강자에게 놀림을 당할 때는 고스란히 당하고서 나중에는 정신승리법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보다 약자인 비구니를 괴롭힌다. 아Q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수암의 젊은 비구니의 볼을 꼬집은 땃가로 아Q는 “대(代)나 끊겨

27 魯迅, 魯迅전집번역위원회 옮김, 『아Q정전(阿Q正傳)』, 『외침』, 『루迅전집』 2권, 그린비 출판사, 111쪽.

라, 이 아Q놈아!”라는 악담을 비구니에게서 듣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아Q는 “맞아, 여자가 있긴 해야 해. 자손이 끊기면 누가 제삿밥 한 그릇이라도 차려 주겠어 … 여자가 있어야 해. 무릇 ‘불효엔 세 가지가 있나니 후사 없음이 으뜸’이거늘.” 여자 생각에 골몰하던 차에 아Q는 자오나리 댁에서 쌀을 찧는 일을 하게 되었다. 자오나리 댁의 유일한 여자 하인인 우 어멈(吳媽)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Q는 갑자기 “너 나랑 자자, 나랑 자자구!”라고 말하게 된다. 우 어멈은 벌벌 떨면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아Q는 자오나리의 아들인 수재의 몽둥이를 피하지 못하였다.

이 연애의 비극 사건을 계기로 아Q는 ‘자오나리 댁의 문턱을 넘지 말 것’에 대한 서약서를 쓰게 되었는데, 이상한 일은 웨이쥡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점이다. “마을의 여인들은 아Q가 오는 걸 보기만 하면 하나같이 대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거나”, “꽤 여러 날 동안 날 품 일을 부탁하러 오는 집이 없다는 것이다.” 이 일은 아Q의 생계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니 아Q에게 맡겼던 일들은 샤오디(小D)가 하고 있었다. 샤오디가 “자신의 밥줄을 낚아챌 줄 누가 알았으랴”. 아Q의 분노는 평상시와 달랐고, 웨이쥡 마을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아Q는 “성안으로 가는 게 더 낫겠어”라고 판단하고 웨이쥡 마을을 떠나게 된다.

마을의 지배계급인 자오나리 댁의 하인인 우 어멈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아Q는 생계가 끊겼으며, 자오나리 이외의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아Q에게 일감을 맡기지 않았다. 마을의 지배계급은 ‘일감을 주지 않는’ 비폭력적 배제의 방식을 이용하여 아Q를 웨이쥡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고 배제시키는 한 방식인 것이다.

둘째, ‘혁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배제의 방식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 『아Q정전』의 시대 배경은 신해혁명이 일어난 1911년인데, 소설 속에서는 “선통(宣統) 3년 9월 14일”²⁸로 표기하고 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溥儀)가 제위에 오른 것이 1909년인데, 신해혁명으로 인해 퇴위한다. 신해혁명은 중국의 왕조 봉건체제인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중화민국이라는 입헌공화국을 수립한 혁명이다. 『아Q정전』은 국민성에 대한 비판일 뿐 아니라 1911년 혁명에 대한 사색이기도 하다. 루쉰은 “여러 해가 지난 뒤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난다 해도 아Q와 같은 혁명당이 거듭 생겨날 것”²⁹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소설은 신해혁명에 대한 사색일 뿐 아니라 장차 반복해서 출현할 수 있는 혁명과 혁명가에 대한 탐색³⁰이라고 왕후이는 말했다.

신해혁명은 성공하지 못한 혁명, 완전하지 못한 혁명이었다. 새로운 혁명세력인 쑨원(孫文)은 군사력이 없어서 혁명 이후를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혁명세력인 그들이 쫓겨나고 봉건 군벌세력인 위안스카이(袁世凱)가 혁명 이후에 정권을 잡게 된다. 일반 사회적인 질서, 사회적인 구성도 봉건적인 데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신해혁명을 실패고 좌절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루쉰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

『아Q정전』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부정적 해석으로는 “아Q는 모든 중국인의 모든 ‘인습적 내림’의 결정체이며,

28 魯迅, 『阿Q正傳』, 『魯迅全集』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557쪽.

29 魯迅, 『阿Q正傳』的成因, 『魯迅全集』第3卷, 人民文學出版社, 397쪽.

30 汪暉 著, 김영문 옮김, 『아Q생명의 여섯 순간』, 너머북스, 2015, 12쪽.

차가운 풍자와 냉소다”³¹라는 견해가 있으며, 긍정적 해석으로는 “아Q가 자발적으로 혁명으로 나아갔다. 농민계급의 혁명적 가능성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여 아Q가 “정신승리법을 벗어나 자발적 혁명 요구로 나아간 빈농의 계급적 특징을 반영하면서, 빈농의 전형이 되었다”³²고 해석하였다.

소설 「아Q정전」에 나타난 아Q의 혁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그는 왜 혁명에 참여하고자 하였는가?

어느 날 웨이쥡 마을에 큰 배 한 척이 자오나리 저택이 있는 강기슭에 닿았다. 그건 바로 성안의 거인나리의 배였는데, 풍문에 의하면 혁명당이 진격해 와서 거인나리가 웨이쥡 마을에 피난을 온 것이라는 소문과 거인나리의 옷장을 자오나리에게 맡아 달라고 했다는 등의 풍문이 있었다.

그에게 혁명당은 반란을 일삼는 무리들이며 반란이란 곧 고난이었다. 그래서 줄곧 이를 ‘통절히 증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이것이 백 리 사방 이름이 알려진 거인나리까지 별별 떴게 만들었다니 그로선 ‘신명’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웨이쥡의 무지렁이들이 허둥대는 꼴은 아Q의 기분을 한층 상쾌하게 만들었다.

‘혁명이란 것도 괜찮네’. 아Q는 생각했다. ‘이런 씨팔 것들을 뒤집어 버리자. 좇같은 것들! 가증스런 것들! 나도 혁명당에 가입해야지!’³³

31 仲密(周作人), 『阿Q正傳』, 『阿Q70年』(彭小苓 編選),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3, 60쪽.

32 林志浩, 1979, 전형준, 「아Q정전」 다시 읽기, 네이버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고전 38강),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79158&rid=2892> 재인용.

33 魯迅, 魯迅전집번역위원회 옮김, 「아Q정전」, 『외침』, 『루迅전집』 2권, 그린비출판사, 140쪽.

아Q가 생각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첫째가 “모반”이며, 둘째는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내 것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모두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웨이쑹 마을의 지배계급인 자오나리보다 더 상층부에 있는 성안의 거인나리까지 벌벌 떨게 만드는 혁명이라는 것, 아Q도 혁명당에 가입하기로 작정한다. 아Q는 자신이 바로 혁명당이 된 것 같았고, 정수암에 있는 “황제 만세 만만세”라는 용패(龍牌)를 없애는 혁명을 하러 갔다.” 그러나 정수암에 가 보니 황제의 용패는 이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고, “수재와 가짜양놈이 이미 와서 혁명을 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성질이 고약한 혁명당 몇몇이 패악질을 부리고 다녔는데, 그다음 날부터 변발을 자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Q도 대젓가락으로 변발을 틀어 올리고, 거리로 나섰다. 자오 수재는 가짜양놈 편에 자기도 자유당(自由黨)에 입당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고, 가짜양놈은 돌아와서 수재에게 복숭아 모양의 은배지를 저고리 옷깃에 달게 해 주고, 대신 은화 사원을 청구했다. 혁명당과 안면을 트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아Q는 가짜양놈을 찾아가 “제가 가입을....”이라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가짜양놈에게서 “꺼지라니까!”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난다.

양선생(洋先生)이 자기에게 혁명을 불허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다. 흰 투구에 흰 갑옷을 입은 자들이 자기를 부르러 오리란 기대는 이제 할 수 없었다. 그가 품고 있었던 포부며 지향이며 희망이며 앞길은 전부 날아가 버렸다. 한량패들이 소문을 퍼트려 샤오D나 왕털보 무리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일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이런 무료함은 여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말아 올린 변발조차도 무의미하고 모멸스럽게 느껴졌다. 분풀이로 확 늘어뜨려 볼까도 했지만 끝내 그러진

못했다.³⁴

아Q에게 혁명을 허락하지 않은 양 선생은 변발이 없는 가짜양놈이고, 첸나리 댁의 큰아들이다. 혁명에 대한 아Q의 인식수준이 올바르지 않고, “설마 놈들이 내가 혁명당에 가입한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순진하고 무지한 아Q이지만, 혁명당에 가입하고 싶어 하던 아Q의 포부와 지향은 지배계급인 양 선생에 의해 바로 무산된다.

혁명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구(舊)지배계급이 혁명당의 일원으로 몸을 바꾸고,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피지배계급은 그 혁명 과제의 수행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이 아이러니야말로 신해혁명의 실체에 대한, 나아가서는 중국 사회의 봉건성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다.³⁵

이처럼 웨이쥡 마을의 지배계급인 양 선생과 첸나리 댁의 큰아들은 아Q의 ‘혁명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아Q를 배제하였다.

4. 폭력적 배제의 양상

중국 사회의 등급질서에는 유교의 예치(禮治)질서가 동반되었다. 예치는 기본적으로 존비(尊卑), 귀천(貴賤), 친소(親疏), 장유(長幼), 남녀(男女)의 차이를 분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등하는 데서 출발한다. 중

34 上同, 149~150쪽.

35 전형준, 「아Q정전」 다시 읽기, 네이버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고전 38강),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79158&rid=2892>

국 전통사회는 이처럼 유교의 예(禮)가 정치·사회 조직원리에 편입되고, 모든 사회관계가 서열과·등급화되는 차이와 서열의 구조를 형성하였다.³⁶ 전통 유교사회는 등급질서의 토대이자 핵심이었다. 중국 등급질서는 루쉰이 중국 사회와 중국인의 의식을 비판하는 주요 논점 가운데 하나다. 루쉰은 등급사회와 등급사회 이데올로기에 대해 시종일관 비판적 태도를 취했으며, 이러한 등급질서가 상호착취의 노예질서라고 보았다.³⁷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능멸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능멸할 수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면서도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³⁸는 상호착취의 질서이며, 이 등급질서를 사람들 스스로 내면화시키면서 자신보다 위 등급에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착취당하지만 동시에 자신보다 아래 등급에 있는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서 착취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남을 노예로 부리고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희망이 있기에 자기 역시 언젠가 노예로 부림을 당하고 잡아먹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³⁹다는 것이다. 루쉰이 보기에 이렇게 층층이 이루어진 상하 위계질서는 자신이 주인이자 노예인 구조다. 이 등급질서가 상하 유동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소설 『아Q정전』에는 웨이쑹 마을에 사는 지배계급의 아Q에 대한 배제 방식이 비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아Q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것이거나 혁명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배계

36 미조구찌 유조 외 지음, 동국대 동양사연구실 옮김, 『중국의 예치시스템』, 청계, 2001, 230쪽.

37 이옥연, 「『阿Q正傳』 속 등급질서와 아Q의 혁명-왕후이의 『아Q정전』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중국현대문학』 제86호, 2018, 57쪽.

38 魯迅, 「燈下漫筆」, 『墳』, 『魯迅全集』 第1卷, 227쪽.

39 上同, 229쪽.

급에 의해 아Q가 ‘폭력적으로 배제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아Q는 웨이쑹 마을의 하층민에 해당하는 건달이나 왕털보, 샤오D와 티격태격 몸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웨이쑹 마을의 지배계급에 의해 폭력적으로 배제를 당하는 양상은 충격적이게도 바로 ‘아Q가 총살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짜양놈에게 혁명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한 아Q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무료함에 시달린다. 혁명을 하겠다고 대나무 젓가락으로 틀어 올린 변발조차도 무의미하고 모멸스럽게 느껴져서, 그 분풀이로 변발을 확 늘어뜨려 볼까도 생각했으나 끝내 그러지는 못했고, 아Q가 품고 있던 혁명에 대한 포부와 희망이 모두 날아가 버려 무료함에 시달리던 때였다.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쿵 와장창~!”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중략)

“뭐야?” 아Q는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다.

“자오 … 자오씨 댁이 털렸어!” 샤오D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Q의 심장이 쿵광거렸다. 샤오D는 이 말을 하고는 뛰어가 버렸다. 아Q도 도망치다 멈추고 도망치다 멈추고 그러기를 두세 번했다.⁴⁰

자오씨 댁에 약탈이 있었던 나흘 뒤 아Q는 느닷없이 한밤중에 불들려 성안으로 끌려갔다. 성안의 관청에서 아Q는 까까머리 영감에게 심문을 당하는데, 그는 아Q에게 “그날 밤 자오씨 댁을 약탈한 일당들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 아Q는 “그들은 저를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자

40 鲁迅, 『阿Q正傳』, 『魯迅全集』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557쪽.

기네들끼리 가져가 버렸습니다요”라고 대답했으나, 아Q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았다.

아Q는 포장없는 수레에 떠밀려 올랐다. 짧은 옷 입은 몇이 그와 함께 앉았다. 수레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엔 총을 멘 병사들과 경비단원들이 있었고, 양쪽엔 입을 헤벌린 수많은 구경꾼들이 늘어서 있었다. 뒤쪽은 어떤가? 아Q는 쳐다보지 않았다. 돌연 어떤 깨달음이 왔다. 이거 목 자르는 거 아냐? 갑자기 두 눈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멍해지고 정신이 아찔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히 정신을 잃은 건 아니었다. 때로는 조금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도리어 태연했다. 그의 심중에선 인생살이 천지 간에 목이 날아가는 일도 없진 않으리라 생각하는 듯했다.⁴¹

세 번째로 감옥에서 바깥으로 나온 날이 아Q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날이었고, 두 번째로 감옥 밖을 나와 동그라미로 사인을 한 것이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인 줄 아Q는 몰랐던 것이다. 다만 평생 붓을 처음 잡아 본 경험 때문에 아Q는 깜짝 놀랐고, 혼신의 힘을 다해 동그라미를 그리려 했으나 바깥으로 빠치는 바람에 동그라미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것에만 부끄러워했던 것이다. 그 동그라미 사인이 자신의 목숨줄을 거두어 가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을 아Q는 알지 못했다.

죽음을 향해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자신은 ‘자오씨 댁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도 못하는 아Q, 그리고 형장으로 가기 전에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줄도 처음에는 몰랐던 아Q는 성안의 지배계급에 의해 배제당하는데, 그 배제의 방식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총살이

41 上同, 551쪽.

었던 것이다.

아Q의 죽음 앞에서도 지배계급인 성안의 거인나리와 부대장은 자신들의 사익과 업무의 효율에만 골몰하고 있다. 거인나리는 ‘잃어버린 자신의 물건을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고, 부대장은 ‘죄인에게 본때를 보여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바로 이 ‘죄인에게 본때를 보여 주기 위한 것’, 부대장 업무의 실적을 보여 주기 위한 것 때문에 죄 없는 아Q가 총살을 당하게 된 것이다. 루쉰은 신해혁명의 실패 요인이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Q정전」 속에서는 아Q를 밀고한 자가 누구인지 그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배계급에 속하는 수재는 “지보에게 분부하여 아Q를 웨이쥡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도 했고, 웨이쥡 마을에 혁명당의 풍문이 들렸을 때, 잔뜩 겁을 먹은 자오나리는 아Q에게 “Q 선생”이라고까지 부르며, 지배계급의 비겁함과 위선을 드러내었다.

전형준은 “지배계급이 민중의 고통과 본질적인 연관을 갖고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⁴² 그가 보기에 「아Q정전」 이전까지는 민중이 전면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아Q정전」에서 달라지기 시작하여, “민중에 대한 근원적인 긍정이 구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리돌림을 당하며 형장으로 끌려가 총살당하는 아Q의 모습은 독자의 마음속에 깊은 비애(悲哀)로 남는다. 지배계급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된 민중인 아Q는 자오씨 댁의 물건을 훔쳤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혁명은 내

42 전형준, 「「아Q정전」 다시 읽기」, 네이버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고전 38강),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79158&rid=2892>

전 상태에 이르는 혼란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루쉰은 아Q라는 어리석은 민중을 주인공으로 삼아, 지배계급에 의해 배제당하는 아Q, 중국인의 노예근성이 가득한 국민성을 재현하여, 그러한 국민성을 바꾸고자 했다.

5. 나오며

아Q의 죽음을 바라보는 웨이쥡 사람들의 여론은 “모두들 아Q가 나뻐다는 거였다. 총살을 당한 것이 그가 나쁜 증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시의 구경꾼들은 “그들 대다수가 불만이였다. 총살은 참수(斬首)하는 것만큼 좋은 구경거리가 못된다는 거였다.” 아Q의 총살 앞에서 성안 사람들의 구경꾼으로서의 관점은 노예근성이 가득한 어리석고 개념 없는 중국인의 영혼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은 소설 「아Q정전」에서 ‘지배계급에 의해 배제되는 인간, 아Q’를 탐색해 보았다. 소설 속에 드러나는 배제의 방식은 비폭력적 배제의 양상과 폭력적 배제의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아Q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지배계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폭력적 배제의 양상으로는 아Q가 자오나리 댁의 유일한 여자 하인인 우 어멈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면서, 웨이쥡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생계 꿀깎이’로 나타났고, 가짜양놈이 아Q가 혁명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아Q는 혁명 참여를 통해 얻고자 했던 물건과 사람을 얻지 못하였다. 이것은 자오나리와 가짜양놈이라는 웨이쥡 마을의 지배계급과 관련된 일들이었다.

폭력적 배제의 양상은 아Q의 목숨을 거둬 가는 총살당하는 것이었

다. 이 일은 웨이쥡 마을이 아닌 성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자오나리
택의 약탈당한 물건들과 관련이 있으며, 부대장의 업무 성과를 얻기 위
한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아Q정전」이 중국의 국민성을 묘사한 것이며,
20세기 초 중국의 사회상인 신해혁명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아Q의 전형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
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투고일: 2023.12.20. 심사기간: 2023.12.27.~2024.01.07. 게재확정일: 2024.01.15.

| 참고문헌 |

- 魯迅, 『阿Q正傳』, 『魯迅全集』 第1卷, 北京:人民文學出版社, 2005.
- 魯迅, 루쉰전집번역위원회(공상철 역), 『루쉰전집』, 그린비, 2010.
- 汪暉 저, 김영문 역, 『아Q생명의 여섯 순간』, 너머북스, 2015. (DOI: 10.978.8994606/385)
- 汪暉 저, 송인재 역, 『절망에 반항하라』, 글항아리, 2014. (DOI: 10.978.896735/1175) (UCI: G701:B-00114487345)
- 왕샤오밍 지음, 이윤희 옮김, 『인간 루쉰』, 동과서, 1997.
- 리쩌허우(李澤厚) 저, 임춘성 역, 『중국근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UCI: G901:A-006094541)
- —————, 김형중 역, 『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UCI: G901:A-0006094542)
- 페이사오통(費孝通) 저, 장영석 역, 『향토중국』, 비봉출판사, 2011.
- 민두기 저, 『중국의 공화혁명』, 지식산업사, 1999.
- 미조구치 유조 외 지음, 조영렬 옮김, 『중국 제국을 움직인 네 가지 힘』, 글항아리, 2015.
- ————— 외 저, 동국대 동양사연구실 역, 『중국의 예치시스템』, 청계, 2001. (UCI: G901:A-0006015862)
- 이옥연, 「시대와 정전-루쉰의 『아큐정전』의 경우」, 『중국현대문학』 제39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6. (UCI: G704-000355.2006..39.003)
- ———, 「『阿Q正傳』 속 등급질서와 아Q의 혁명-왕후이의 『아Q정전』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중국현대문학』 제86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8. (DOI: 10.46487/jmcl.2018..86.39)
- 이보경, 「阿Q, 화자, 역할수행-〈阿Q正傳〉 읽기」, 『중국어문학논집』 제48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UCI: G704-000476.2008..48.009)
- 서광덕, 「중국 近代性 敍事에 대한 반성적 고찰-최근 辛亥革命, 五四 그리고魯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74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UCI: G704-000476.2012..74.008)
- 김하림, 「정신이 승리하면 육체는 패배하는 것일까」, 『중국현대문학』 제77호, 한국중국현

www.kci.go.kr

대문학회, 2016. (UCI: G704-000355, 2016..77,002)

- 이종민, 「왜 루쉰을 다시 소환하려 하는가-汪暉의 『阿Q生命中的六個瞬間』에 대한 반론」, 『중국현대문학』 제84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8. (DOI: 10.46487/jmcl.2018..84,57)
- 홍석표, 「루쉰(魯迅)의 <아Q정전(阿Q正傳)>의 서사 전략-아Q의 '정신승리법'은 돌파될 수 있는가?」, 『중국문학』 제110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22. (DOI: 10.21192/scll.110..202202.013)
- 전형준, 「『아Q정전』 다시 읽기」, 네이버 열린 연단: 문화의 안과 밖(고전 38강),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79158&rid=2892>
- 彭小琴 編選, 『阿Q70年』,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3.
- 許壽裳, 『亡友魯迅印象記』, 當代世界出版社, 2015.
- 王瑤, 「從“反抗絕望”到“向下超越”-汪暉魯迅研究述略」, 新疆大學學報, 2017. 제45권 제2기.
- 支克堅, 「關於阿Q的革命問題」, 『文學評論』, 1979年 第4期.
- 陶東風, 「本能, 革命, 情神勝利法-評汪暉『阿Q生命中的六個瞬間』」, 『文藝研究』, 2015年 3期.
- 顏素強, 「魯迅小說對等級觀念的批判」, 『寧德師專學報(哲學社會科學版)』總第28期, 1994年 第1期.
- 譚桂林, 「如何評價阿Q式的革命并汪暉先生商榷」, 『魯迅研究月刊』, 2011年 第10期.

| Abstract |

Ah Q, A Person Excluded by the Ruling Class

- Rereading Luxun's *The Real Story of Ah Q*

Kim, Myoung-Hee

Luxun considered two key words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Real Story of Ah Q*. One is 'the spirit of modern Chinese people', or the national traits, and the other is 'hierarchical society'. In the writing 'The Reason for Writing *The Real Story of Ah Q*', Luxun said "I have nothing to say or to write. However, I have a trait of self-abuse, so I wanted to show something noisy to people by screaming out for a few words." *The Real Story of Ah Q* is included in his first novel collection *Call to Arms*. Luxun might have tried to arouse the spirit of modern Chinese people who have paralyzed lives silently in the traditional hierarchical society.

The destiny of Ah Q is closely related to the ruling class of the traditional Chinese society. All the misfortunes in *The Real Story of Ah Q* are done as he is excluded by the ruling class of Chinese society.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how Ah Q is excluded by the ruling class with main authority. The ruling class of Wei

Zhuang Village, which is the existing social order, excludes Ah Q and executes by firing squad using both non-violent and violent exclusion. In this study, *The Real Story of Ah Q* is reread with the consideration of how this novel expresses the way the ruling class excludes Ah Q, which is 'non-violent' and 'violent' methods of excluding.

Key word

Luxun, *The Real Story of Ah Q*, ruling class, exclusion, Ah Q